

日 · 호주 EPA/FTA, 2015년 초 발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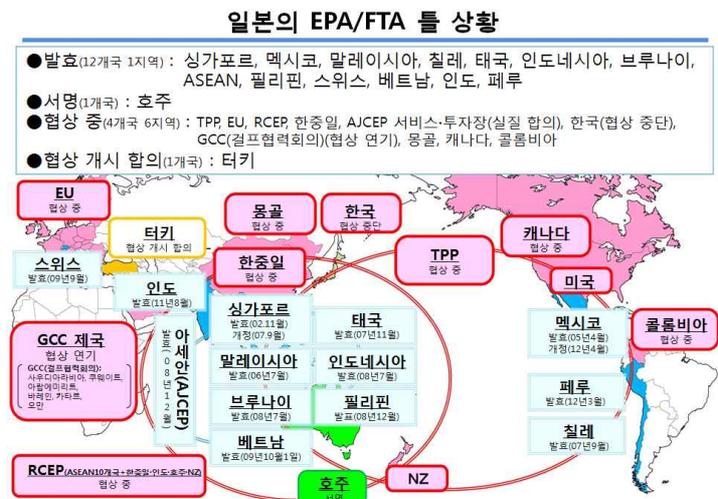
- 일본과 호주 간에서 EPA/FTA에 대한 서명이 진행, 일본은 14번째 국가와의 EPA/FTA를 체결
- 농업 대국과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쌀이나 밀 등 곡물의 관세 삭감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쇠고기나 와인 등에서는 관세 철폐 또는 삭감을 실현

□ 日·호주 EPA/FTA 체결

- 일본의 아베 총리는 7월 8일에 호주의 애벗 총리와 회담, 경제연계협정(EPA/FTA)에 서명

- 이것으로 일본이 체결한 EPA/FTA는 14건이고 日호주 EPA/FTA는 일본과 호주의 국내 절차를 거쳐 '15년 초에 발효될 예정

- 호주는 수입 상대국으로서는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인 국가임으로 현재 일본이 체결한 2국간 무역협정에서는 최대 무역상대국



자료 : 경제산업성

- 협정에 따르면 일본 측은 발효부터 10년 이내에 무역 품목의 88% 이상(금액 배이스로 93% 이상), 호주는 99% 이상의 수입 관세를 철폐

□ 협정에 의한 효과

- 호주산의 와인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현재 15% 또는 1리터당 125엔 중 저렴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를 7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

- 관세 철폐분을 반영시키면 호주산 와인의 판매가격이 약 10% 인하됨
- 호주산 쇠고기는 가공용이나 외식에서 사용하는 냉동쇠고기를 협정 발효 후 18년째에 19.5%, 일반소비자용의 냉장쇠고기를 15년째에 23.5%까지 단계적으로 삭감
 - 관세가 23.5%까지 삭감되면 호주산 냉장쇠고기의 판매가격은 약 8~10% 인하될 전망
 - 수입 소혀의 30%를 차지하는 호주산은 즉시 7.6%로 삭감되며 매입가격이 단순계산으로 1kg당 5%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호주에 대해 430억 엔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중소형차에 부과되는 5%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약 300억 엔의 부담이 삭감될 전망
 - 호주는 이미 미국 자동차의 수입 관세를 철폐, 우리나라 자동차의 관세 철폐에도 합의하여 향후 수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日·호주 EPA/FTA에는 「일본 시장의 경쟁력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호주의 원산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항목이 추가됐음
 - 이 조치에 따르면 만약 TPP 체결 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보다 우대하는 경우 호주산에 대한 관세도 인하될 것임
 - 거꾸로 TPP 협상이 지연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자인 미국산 쇠고기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日호주 EPA/FTA를 성과로 내세우고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철폐에서 양보를 얻어낼 방침
- 경제 외의 분야도 포함한 협정인 EPA의 측면에서 日·호주 양국은 사람의 이동이나 지적재산의 보호, 제도의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효율화를 약속,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 등을 합의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호주 측이 난색을 보여 5년 이내에 다시 협의할 예정

□ 시사점

- 日·호주 EPA/FT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첫 EPA로 그동안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국내의 축산업자를 배려하여 수입이 일정량이 넘은 경우 세율을 다시 38.5%로 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도 도입
 - 日·호주 EPA/FTA가 일본 농업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협정 체결에 의한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등 일본이 아직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협정이 많다는 점에서 무역 환경은 유리함
 - 한일 양국이 호주와 EPA/FTA를 체결한 것은 3개국을 포함하는 RCEP의 협상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예상
 - 동시에 TPP 협상도 타협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도 요구될 것임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4.4.8, 7.9), 마이니치신문(2014.7.8), 일본농업신문(2014.7.9)

< 日호주 EPA 주요 내용 >

일본의 관세	와인	현행 15% 또는 1리터당 125엔 →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쌀	관세 유지
	밀	식량용 : 나중에 재검토 사료용 : 무세화
	쇠고기	소혀, 횡격막, 간 : 현행 12.8% → 7.6% 냉동 쇠고기 : 현행 38.5% → 1년 후 30.5% → 17년 후에 19.5%로 냉장 쇠고기 : 현행 38.5% → 1년 후 32.5% → 14년 후에 23.5%로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유지, 수량을 제한하여 고가격품의 관세를 50% 삭감
	유제품	블루 치즈 : 현행 29.8% → 10년에 걸쳐 20% 삭감 내추럴 치즈 : 현행 29.8% → 관세 제로 범위를 확대 버터, 탈지분유 : 나중에 재검토
	아이스크림	성분에 따라 현행 21%, 21.3%, 29.8% 등 → 일정량에 한정하여 50% 삭감
	남방참다랑어, 연어	현행 3.5% → 10년에 걸쳐 철폐
	오렌지	여름 기간에 한정하여 철폐
	설탕	일반 조당, 정제당은 나중에 재검토
호주의 관세	자동차	배기량 1500cc~3000cc의 중소형차 : 즉시 철폐 배기량 3000cc 이상 : 3년 이내에 철폐
	자동차 부품	3년 이내에 철폐, 일부 즉시 철폐
	기계, 가전	즉시 철폐
	철강	5년 이내에 철폐
공통 분야	식량, 자원	안정 공급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노력을 규정
	투자	최혜국대우(투자가 對 국가의 분쟁 해결을 재협의)
	지적재산	차별 없이 보호, 운용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